

추 도 사

신록의 계절, 소백산의 짙은 녹음이 뭇 생명들에게 활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불교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조사스님의 열반 42주기를 추모하는 법석에서 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의 마음을 모아 스님의 자애와 덕화를 기립니다. 중생구제를 향한 스님의 광대한 원력을 이어 수행정진과 자비실천에 앞장서는 천태종의 사부대중께도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날 천태종은 주경야선의 실천을 통해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지표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천태지자 대사의 교관총지로부터 형성되어 온 천태종의 뿌리는 고려 의천 대각국사에 의해 이 땅에 피어났고, 조선 500여 년의 은물을 딛고 이곳 소백산에서 상월원각 조사에 의해 다시 법향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천태종의 성지인 호북성 옥천사와 하남성 정거사에 ‘천태불법홍포세계평화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태종은 절강성 국청사와 더불어 종지종통의 근원이 되는 도량에 성역화 불사를 함으로써 부종수교와 전등심인의 토대를 명확히 세운 것이며, 이 또한 스님의 원력을 봉대해 나가는 천태종의 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류문명의 발달 속도는 점점 가속화 되지만, 그로 인한 환경파괴가 늘어나고 사회의 도덕의식은 오히려 퇴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부조화는 세상을 점점 오락악세로 만들어갈 뿐이고, 그 위험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선지식의 가르침은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의 도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중창조 상월원각 스님 역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상월원각 조사스님의 열반 42주기를 맞아 천태종 종도는 물론 한국종단협의회 소속 모든 종단이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국민화합과 사회발전으로 평화통일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0(2016)년 6월 2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